

행복한 금요 편지

아들아.


박종훈¹⁾
고려대학교 교수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단다. 삽화가 들어 있는 글이었는데 가슴이 찡하더구나. 어린 아이 때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의 뒷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의 운전하는 모습을 보다가 조금 더 크면 조수석에 앉게 되고 세월이 더 흐르면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우고 그러다가 언제부터는 아버지는 뒷좌석에 어릴 적 아이가 앉던 자리에 앉는다는 거야.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문득 뒷좌석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아들아.

나도 아버지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단다.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고 어머님께 야단만 치는 아버지를 늘 못 마땅해 했었어. 그런데 말이다. 언제나 당신이 최고라고 큰소리치시던 그런 분이 어느 날 보니까 그저 힘없는 노인이 되어버렸더라고. 우연히 함께 간 대중목욕탕에서 본 아버지는 당신의 몸도 씻기 버거워하는 그런 노인이시더라고. 때를 밀어야 한다는 아버지와 아파서 싫다는 내가 실랑이하던 시절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 아버지는 당신 몸도 혼자 씻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없는 노인이 되었어. 늘어진 피부와 굵고 흰 등을 보면서 나는 무척 가슴이 아팠단다.

1) 박종훈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의무기획처장을 역임하였으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너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증막이나 불가마에서 견디기 어려워 해. 뜨거운 한증막에 들어가 있는 나를 혹시 놓칠까봐 불안은 하고 그렇다고 곁에 있자니 뜨거워서 힘들고... 계속 문을 열고 들락거리는 너에게 자꾸 그럴 거면 혼자 집에 가라고 했더니 네가 내게 뭐라고 했냐하면 '아빠, 지금은 아빠가 저를 돌봐주시는 것이고 나중에 아빠가 늙으면 제가 돌봐주는 거예요'라고 말이다. 어찌나 우습든지. 말을 그랬지만 설마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훌쩍 커버린 너를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는구나. 아빠에게 서운한 것 많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도 그렇겠지. 나와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말이다. 그리고 또 너도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거야. 그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운명이란다.

희한한 것은 지금에 와서는 내가 할아버지에게 미안한 것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분명 할아버지에게 서운한 것이 내가 훨씬 많았는데 말이지. 그것이 세상의 오묘한 이치가 아닐까 싶구나.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절대로 갖지 말고 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렴. 아버지가 네게 인생의 팁을 하나 준다면 늘 남을 배려하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구나. 언젠가 아버지는 너보다 일찍 세상에서 없어질 텐데 명심하고 성공한 인생 살아야 한단다. 알았지, 아들아?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